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6:1-2,3-8	제2독서	코린도1 15:1-11	복음	루카 5:1-11
--------	------	----------------	------	--------------	----	-----------

◎말씀 <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은? >

<p>오늘 1,2독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각각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무엇 이겠습니까?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이사6,5)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 기 때문입니다.” (1고린15,9)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루가5,8)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더럽고, 자격도 없고 죄인임” 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p> <p>이사야 예언자는 “큰 일 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자 천사 한분이 부집게로 제단에서 타는 숯을 하나집어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달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리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하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입술이 더러운 이사야는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p>	<p>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복음의 베드로도 죄인임을 고백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고 하셨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 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루가5,5) 해보야 오늘은 허탕일 것이 뻔한데 그러나 순명했습니다.</p> <p>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 예언자, 바오로 베드로 사도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꺼이 응답할 때 주님께서 만선의 기쁨 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p>
--	--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2월 12일(화)	연중 제5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5,265.00 \$ 1,176.00
2월 13일(수)	연중 제5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 소 후원 사회복지	\$ 144.00 \$ 161.00
2월 14일(목)	성 치킬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기타수입	\$ 181.00 \$ 100.00
2월 15일(금)	연중 제5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주일학교 설위령미사	\$ 120.00 \$ 2,185.00
2월 16일(토)	연중 제5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9,332.00
2월 17일(일)	연중 제6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0명 성인: 244명
교무금 봉헌자	권오돈(10-12월)김초지(1-12월)김재선(1-4월)송민자. 김옥동. 최범진. 안병훈, 봉창의. 류승교(1-2월)박성호 김계숙(1월)김규철. 김은영. 유정임. 구준모. 김재홍. 김광희. 김옥륜. 최이주. 성영진. 허형, 김운태. 김상돈. 안강순. 전기례. 김규대. 백정심. 엄희수. 황호민. 엄용덕. 김영숙(2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성호경의 유래와 의미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기 전과 후,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루를 마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성호를 긋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호는 왜 그을까요? 또 성호는 언제부터 긋기 시작 했을까요?

성호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성호경 자체로도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2세기경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이마에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박해가 심하여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큰 성호경을 긋기 시작한 것은 11세기 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성호경 형태로 정착 되었습니다. 특히 성수를 찍으면서 성호경을 그을 때 에는 세례를 새롭게 하고 악에서 보호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강력하게 주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호경 긋는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법은 '성령의 이름' 을 그을 때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를 지나 두손을 모으지만, 동방교회의 성호경은 오른쪽 어깨부터 성호경을 긋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전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 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렛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박원상.토마스	생	임시몬.임그라시아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데레사
연	이명호.안셀모의 영혼	가족	생	진멜리사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 데레사
연	이명호.안셀모의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해리와 카일의 가정	황호민.안드레아
연	조상님들의 영혼	이규청.제노비아 이호영.베드로	생	현.크리스토퍼,현데레사 영육간건강	오에스터
			연	홍성규.이나시오의 영혼	정의의모후Pr.

간
장
중
지

◎당신은◎
당신은 내게
자부심을 심어 주신 이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신 이
참기쁨을 그냥 주신 이
내게 당신은 '주님'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